

# “대학, 지속 가능한 미래위해 ‘교육·의식 혁명’ 재촉해야”

## 조인원총장인터뷰

기호웅 기자 kihodori2@knu.ac.kr

#. 우리학교 개교 68주년을 맞이해 조인원 총장을 만나 변화하는 시대의 대학의 역할과 우리학교의 미래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 총장은 현재 학교가 진행 중인 사업과 제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정부의 대학 교육정책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와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했다.

**Q1** 과학기술의 발달과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고등교육 시스템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어떠한 가치 지향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나?

“미래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 문명전환의 내용과 속도가 그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특이점(singularity)’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이 점에 이르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사물인터넷과 유전공학 같은 첨단기술이 급진전하면서, 조만간 인간의 사유 범주를 초월하는 세계가 도래할지 모른다.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이 문명의 전환적 ‘가능성’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올 것이라는 말은 설득력을 지닌다. 그 어느 때보다 삶과 생활의 실용적 가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겠지만, 인간의 통제 밖에서 작동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세계는 역설적으로 인간을 ‘잉여의 존재’로 내몰 수 있다. 대학은 실용과 풍요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삶의 의미를 고양하는 상상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

**빠른 문명전환의 내용과 속도  
‘가능성’과 ‘우려’의 ‘공존’**

**Q2** 2017학년도 입학식 환영사에서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인 진리 추구뿐만 아니라 학문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BLUE PLANET 21’이라는 글로벌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BLUE PLANET 21’ 사업은 대학의 공적 책임을 위한 글로벌 연계협력 사업이다. 경희의 학술역량을 사회로, 세계로, 미래로 연결하면서, 사람과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연계협력 클러스터 개념을 다년간 전진시켜 왔다.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다섯 분야 중 앞의 세 클러스터가 먼저 출발했다. 국가와 기성정치가 ‘시장과 권력’의 편협한 논리로 공적책임을 방기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Blue Planet21’이다. 또한 양 캠퍼스에 지역사회, 국가와 사회, 국제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학술과 실천의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이영립 동문께서 기부한 40여만 평의 금산 부지에도 태양광과 청정에너지, 물 문제, 한약물 연구 기반시설을 기획해 환경·에너지, 공공보건 문제를 다루어갈 예정이다.”

**Q3** 이전 정부는 여러 국가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운영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총장께서는 고등교육과 대학운영에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국가는 성장과 소비, 경제와 지배의 정당성에 거의 모든 것을 걸어왔다. 정치는 그런 생존과 실리의 문화 속에서 정파와 계파, 눈앞의 이익과 투쟁에



▲우리학교 개교 68주년을 맞이해 조인원 총장이 지난 10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우리 신문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차관호 기자)

익숙해져 있다. 대학 역시 과도한 경쟁체제 속에서 지나치게 현실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어진 국가의 틀, 현실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대학 본연의 가치를 깊이 성찰하지 않았다. 개인과 시민,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행복은 무엇인지,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지, 늦었지만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국가와 정치는 대선 전 발현된 각성된 시민의식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대학은 21세기 전환적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교육혁명’, ‘의식혁명’의 길을 재촉해야 한다.”

**Q4** 우리학교는 각종 국고지원사업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국고지원사업 도전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이후 그간 우리학교가 내세우던 대학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과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시각이다. 우리 대학은 정부의 필요에 응하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대처해왔다. 일례로 시대와 현실이 요청하는 산학협력·관학협력에 응하면서, 사업의 시민적 가치·지구적 가치를 잃지 않는 방향에서 지원 내용을 만들어왔다. 후마니타스 정신은 ‘인간의 가치, 자연의 가치, 미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앞으로도 이 길을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가치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도 현실과 시대의 필요를 외면할 순 없다.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Q5** 국제캠퍼스의 종합체육관, 서울캠퍼스의 한의과대학관과 이과·간호대학관 등이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SPACE21 사업의 제1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다. 환골탈태하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구성원들은 감탄을 하는 한편, 앞으로의 계획에 궁금해 하는 점들이 많다. 향후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Space 21 1단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

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난 1979년 국제캠퍼스 이전 당시 설립자께서 약속한 종합체육관 건설이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그 꿈을 이루게 됐다. 양 캠퍼스 노후건물 개보수 사업 착수와 함께 2단계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캠퍼스의 경우, 산학협력관과 외국인 학생·교원을 위한 국제회관을 건립한다. 예술디자인대학 뒤편에는 R&D Valley를 관산학 협력, 글로벌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캠퍼스도 구 이과대학 건물 중 하나를 산학협력관으로 개조하고, 구 한의과대학과 인근 부지에 국제회관과 글로벌타워를 건립하고자 한다.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시설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될 것이다.”

## 올해 1단계 사업 완료 노후건물 개보수와 2단계 사업 예정

**Q6** 지난 3월 대학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17년도에 대학이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재정 정책’이 1위로 꼽혔다. 우리학교의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정책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재정문제,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학들이 겪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가 더 그렇다. 세계 굴지의 고등교육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 대학도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는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대학에 종사하는 교원과 직원의 임금과 복지는 현실적으로 향상돼야 한다. 교육의 질, 연구의 질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어진 여건에서 재정사업을 해나갈 방도 외엔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부지 활용과 학교기업 활성화, 기부금 증대, 교외 연구비 확충을 통해 그간 대책을 마련해 왔다. 지난 수년간 경희의 대학재정 건강도는 국내 정상권을 향상 유지해왔다. 지금은 중장기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체계적

비전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다. 부족했던 소통에 대한 부분은 방침을 세워 보완하도록 하겠다.”

**Q9** 본·분교문제는 오랜 세월동안 구성원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국제캠퍼스를 분교로 인식하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회사는 양 캠퍼스를 구분지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에 올해 당선된 제49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는 ‘캠퍼스 차별 완화’와 ‘캠퍼스 명칭 변경’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애석하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는 그 어떤 정책적, 행정적, 제도적 차별도 없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명실상부한 ‘하나의 대학’이다. 그러나 두 차원의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하나는 내부 인식이다.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아직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외부 문제이다. 여전히 주요 사립대학들이 본·분교 체계를 유지하면서, 심지어 대학 평가까지도 분리해 받는다. 그런 현실 때문에 사회인식이 그렇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 역시 더욱 심층적인 조사·분석에 기초해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

## 명실상부한 하나의 대학 내·외부 차원의 노력할 것

**Q10** 끝으로, 개교 68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경희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한다.

“경희는 지난 68년 많은 것을 이뤘다. 학술과 교육면에서 국내 명문이 됐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세계 굴지의 대학, 대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고등 학술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대학 순위에서 최정상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다. 구성원의 긍지를 고양하고, 사회와 세계, 미래에 공헌하며, 대학이 이룬 교육·연구의 결실을 이웃과 사회, 인류와 함께 나누는 그런 대학이 되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막중한 책무이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힘을 모아야 이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알려진 태양 폭풍의 반복한 이변과 운석 충돌의 높은 가능성, ‘성장문명’의 팽창이 빚어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생태교란과 전염병 침략, 그리고 골 깊은 사회적 양극화의 고조된 긴장 같은 인류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와 대책을 요청한다. 우리 모두의 공동선인 ‘미래’, 그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성취와 보람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 가능한 인간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한다.”



▲조인원 총장과의 인터뷰는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됐지만 지면 사정상 모든 이야기를 담지 못했다. 인터뷰 전문은 대학주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사진= 출판문화원)